

선입 직원의 눈에 비친 흥부엑스선검진

글_최승호(서울지부 건강중진과)

결핵협회에 입사하기 전 일반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할 때는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해 그저 전염병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핵환자를 검사하게 되면 항상 조심하게 되었고 검사가 끝나면 소독을 하고 환자 곁으로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핵협회를 입사를 하게 되었고, 결핵에 대한 개념을 약간씩 잡아가고 있음 즈음 대학생 검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흥부엑스선 촬영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첫 검진부터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핵이 무엇' 이며 '결핵에 왜 걸리' 며 또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협회 직원이면서 결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외부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질지, 또 나로 인하여 협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면 어떠한나 싶은 걱정과 나 자신의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 발간하는 결핵에 대한 홍보물과 결핵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하였고 결핵은 어떤 질병이며 결핵은 왜 걸리는지 그리고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에 대비하여 결핵에 관련된 결핵환자의 사망률 및 발생률, 결핵 약을 복용할 때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었습니다.

한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핵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결핵에 대해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걸렸던 병쯤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결핵은 어려운 사람들이 걸렸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전염병”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결핵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검진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검진 대상자들의 질문에 하나 둘씩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자신감 있게 검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검진이 끝나고 후반기에 다시 검진을 할 때였습니다. 전에 검진했던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던 학생 하나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몰라보고 어색하게 서 있는데, 그 학생이 다가와 지난 번 결핵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면서 반가워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우리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검진으로 한 명의 학생이 결핵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이 일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검진한 대상자들의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지만 흐뭇한 기쁨들을 떠올리며,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